

영한 번역에 나타난 부정 표현의 변조

김 세 정
(세종대)

1. 서론

부정은 긍정에 대비되는 표현과 의미 자질을 가진 개념으로 담화상에서 특별한 기능을 한다. 글로 쓰여진 문장의 의미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와 문법 구조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말로 발화된 문장의 의미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 담화 상황 등 비언어적인 요소에 따라 유동적이다. 단어나 발화의 의미는 명제적 의미(propositional meaning), 표현적 의미(expressive meaning), 전제적 의미(presupposed meaning), 환기적 의미(evoked meaning)로 구분할 수 있다. 명제적 의미는 단어나 발화가 속해있는 언어의 화자가 생각하는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에서 지시하는 대상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의미로 발화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표현적 의미란, 참과 거짓을 판단 할 수 없는 의미로 단어와 발화가 의미하는 것보다 화자의 느낌이나 태도와 관련된 의미를 말한다(Baker 1992:13-14). 동일한 명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휘일지라도 표현적 의미가 다르면 각 언어에서 다르게 쓰인

다. 언어에 나타나는 표현적 의미는 언어 사용자들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사회 문화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담화의 상황과 문맥에 따라 언어 표현의 선택은 달라진다.

번역시 단어나 문장 구조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함께 발화 상황을 파악하여 그 뉘앙스를 목표언어의 체계와 어휘를 통해 적절히 표현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정 표현은 비언어적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담화상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동일한 표현이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I'm unhappy'와 'I'm not happy'에서 'unhappy'가 'not happy'보다 더 단정적이고 강한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불행하다'가 '행복하지 않다'보다 더 강하게 부정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나 맥락이나 발화 상황에 따라 'unhappy'를 '행복하지 않다'로 일반적이고 중화된 표현으로, 혹은 반대로 'not happy'를 '불행하다'라고 강하게 번역해야 할 때도 있다.

원천언어에 쓰인 부정 표현을 목표언어에서 문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더라도 목표언어권의 문화나 가치관에 따라 더 적합한 부정 표현이나 또 다른 표현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본 고에서는 영한 번역시, 통사와 어휘의 차이를 넘어선 화용의 관점에서 부정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고 부정 표현을 이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부정 표현과 변조

부정은 긍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형태, 분포, 의미에 있어서 긍정과 비대칭적이다. '불규칙', 'unhappy'는 각각 '규칙', 'happy'라는 긍정의 형태에 접사를 덧붙여서 부정이 된다. 부정문에서도 긍정문에 'not'이나 '지 않다' 등의 표현을 첨가한다. 이처럼 언어의 대립 관계에서 긍정이 더 단순하고 일반적이라면, 부정은 복잡하고 특수한 유표성을 지니고 있다. 부정의 유표성은 'friendly/unfriendly', 'consistent/inconsistent'와 같은 어휘의 형태의 대립에서 잘 드러난다. 어휘의 대립은 형태의 복잡성이 개념의 복잡성과 비례한다는 '도상성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부정이 긍정의 개념에 비해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¹⁾. 부정은 언어 체계 내에서 형태, 분포, 의미의 측면에서 긍정에 구조상

으로 길고, 빈도상 덜 나타나며, 인지적으로 복잡한 유표어의 특징을 보여준다.

부정 표현의 유표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방식이 언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한 번역시 때 통사 구조나 어휘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비언어적 요소들이 개입되는 담화상에서는 단순히 통사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어휘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적합한 번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 언어마다 특정 맥락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정의 표현적 의미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어떤 문체가 쓰일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문어체는 구어체처럼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특정 발화 상황이나 어조, 억양을 통해 감정을 드러낼 수 없으므로 어휘나 문장 구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다음은 동일한 부정 구문이 기사의 표제와 기사 내용에 쓰였을 때 각각 다르게 번역된 경우이다.

- (1) [ST1] Bush on Bolton resignation: I'm not happy about it.
 [TT1] 볼튼 美 UN 대사 사임 부시, 상원의 결정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ST2] Bush posed for pictures... "I accepted. I'm not happy about it"
 [TT2] 사의를 존중하겠지만, 기쁘지는 않다. (CNN 2006.12.4)
- (2) [ST1] Japan court overturns earlier ruling, says no need to compensate sex slaves.
 [TT1] 일본 고법, 위안부 보상 '1심 판결' 기각
 [ST2] An appeals court Thursday said the Japanese government need

1) 도상성이란 글자 그대로 기호에 사물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다. 언어기호에서 도상성의 초기 단계는 한자를 비롯한 그림글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자의 형태가 사물의 모습을 닮은 한자의 도상성은 언어의 자의성에 대립되는 '자연적 도상성'이며, 형태와 내용의 측면에서 복합어, 문장, 발화의 구성에서 자연적 도상성과 유사한 형태와 내용의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언어적 도상성'을 규정할 수 있다. 사물의 모습을 기호가 닮고 있듯이, '개념:의미'로 부르는 인지 체계의 모습을 언어의 '형태:구조'가 닮고 있다. 즉, 인지의미론에서 뜻하는 도상성이란 사물의 모습이 기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듯이 우리의 인지체계, 곧 '개념:사고:의미'의 모습이 언어의 '형태:구조'에 투영된 것을 말한다. 개념이 형태에 투영될 뿐 아니라 형태를 통해 개념의 작용방식을 파악하게 되므로 '시니피앙(signifiant)'과 '시니피에(signifie)'의 자의적 관계와 대립되는 용어이다(임지룡 1997:372-77).

no pay three Korean women compensation for forcing them into wartime sexual slavery as no serious constitutional violations occurred.

[TT2] 한 항소법정은 목요일(3월29) 일본 정부는 중대한 위헌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여성 3명에게 전시 성노예 생활을 필요한데 대해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TP 119호 32)²⁾

위 예문 (1)과 (2)에서 [ST1]은 기사의 표제이며, [ST2]는 [ST1]의 기사 표제와 함께 나오는 본문 내용이다. 먼저 예문(1)에서 기사 표제와 내용에 ‘I’m not happy’라는 동일한 부정문이 쓰였지만, 표제의 경우는 한자어 부정접두사를 포함하는 ‘불편한’이라는 어휘를 이용하여 좀 더 격식 있고 집약된 의미를 전달한다면, 기사 본문에서는 원문 그대로 ‘기쁘지는 않다’라고 번역하여 기사의 표제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2)의 [ST1]과 [ST2]는 ‘need’가 부정형 ‘no’와 결합하여 쓰인 경우로 품사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로 쓰인 부정 표현으로, 표제에서는 ‘가각’이라는 어휘로, 본문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부정문 그대로 번역하였다. 이처럼 각 예문의 [TT1]은 영어의 부정 구문을 한국어에서 한자어 명사형 어휘를 이용하여 기사 표제의 간결하고 격식적인 문체적 특성을 드러냈다면, [TT2]의 기사 본문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표제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사의 표제라는 특정 장르의 예문을 통해 동일한 맥락이라도 부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영어와 한국어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영어에 쓰인 동일한 형태의 부정 표현이 한국어에서는 부정접두사나 한자어를 이용한 명사형으로 바뀌었다. 기사의 표제는 가장 중요한 정보나 주제를 말해주는 거시적 표제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표제는 기사의 요점을 압축하여 간결하고 명료하

2)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든 예문의 원천텍스트(source text)는 영어이고, 목표텍스트(target text)는 한국어로 한다. 예문을 제시할 때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는 각각 ‘ST’와 ‘TT’로 표기한다.

분석텍스트의 출처 표기는 영문 제목의 첫 자를 따서 『타임플러스』(Time Plus)는 ‘TP’로 하고 권호수와 페이지 수를 함께 병기한다. 이하 모든 분석텍스트의 표기 방식도 동일하다.

게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포함하는 문체를 접했을 때 기사의 표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 장르로 인식되기도 한다. 장르의 개념적인 기반을 마련한 스웨일즈(Swales 1990)는 담화의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근원적인 목적은 장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장르는 주제나 형식, 주어진 맥락에서 참여자의 역할 등에 대한 담화의 기대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므로 번역에서 특정 문체의 차이점을 인식하여 목표언어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비네이와 다르벨네(Vinay and Darbelnet)는 언어간 서로 대응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차용(borrowing), 모사(calque), 직역(literal translation), 전환(transposition), 변조(modulation), 등가(equivalence), 변안(adaptation)이라는 번역 방법 7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내용과 문체상의 관계를 적절히 조율한 번역 방법이다. 이 중에서 변조는 관점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메시지 차원의 변이로, 직역이나 전환이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나 목표언어와의 정서와 어긋나서 적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번역의 방법이다(전성기 옮김 2003).

변조는 의무적 변조와 선택적 변조로 구분된다. 의무적 변조의 경우는 사용빈도와 전반적 수용가능성, 사전 혹은 문법의 확인 등으로 인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변조는 의무적 변조가 가능하더라도 맥락과 상황에 따라 번역가가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다양한 변조의 유형들은 관점의 변화에 따른 사고 범주들에 작용하여 어휘, 구조, 메시지 차원에서 언어마다 다른 표현 수단을 이용한다. 변조는 원천텍스트에서 의도하는 효과가 목표텍스트에서 유사한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변형의 수단이다.

2.1 부정문의 변조

부정 표현의 번역시 맥락에 따라 목표언어에서 선호하는 표현으로 변조하면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부정 표현을 번역할 때 문장 표층상으로 보이는 부정형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천언어의 단어와 결합한 부정의 의미를 파악하여 문맥에 따라 동일한 의미의 표현으로 전환하여 번역하기도 한다.

- (3) [ST] The hopes are dwindling but they are not yet dead.
[TT] 가능성은 줄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직 생존해 있다.

(TP 117호 38)

- (4) [ST] This was no small decision for us.
[TT] 이것은 우리로서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TP 117호 23)

위 예문 (3)과 (4)의 원문은 모두 부정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번역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어휘를 이용하여 긍정문으로 바뀐 경우이다. 예문 (3)의 번역은 원문처럼 부정을 쓰지 않고 ‘아직 생존해 있다’로 번역하여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예문 (4)에서는 ‘작지 않은 결정’을 ‘중대한’이라는 어휘를 이용하여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원문의 부정 표현을 목표언어에서 긍정 표현으로 변조하여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부정 표현은 어떤 의미를 지닌 어휘와 결합했느냐에 따라 동의 관계가 달라지며 표현 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모순 관계에 있는 ‘죽다/살다’는 ‘죽지 않다’와 ‘살다’가 동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키가 크지 않다’는 ‘키가 작다’와 반드시 동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키가 크지 않다’는 ‘키가 중간이거나 작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키가 작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완화하여 ‘키가 크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순 관계에 있는 어휘들보다는 반대관계에 있는 어휘들을 부정하면 어떤 의미인지 모호할 때가 있다. 어떤 어휘가 부정 표현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의미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때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의 변조가 가능하다.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과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보통 우리가 하는 언어 행위는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으로 구분한 문장 형태에 근거하며, 각각의 기본 기능은 진술, 요청, 질문이다. 오스틴(Austin 1962)은 화행(speech act)을 연구하면서 맥락, 상호작용,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 등의 의사소통 역할에 중점을 두고 발화 행위를 언표적 행위(locutionary act),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 언향적 행위(perlocutionary act)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언표내적 행위는 문장 형태 그대로의 기능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직접 화행(direct speech acts)과 간접 화행(indirect speech acts)으로 구분된다.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세 가지 기본 문장형태와 그 기본 기능인 진술, 요청, 질문이 서로 일치하면 직접 화행이고, 문장의 형태와 전달되는 의미가 다르

면 간접 화행이다. 문장의 표현 형식이 달라도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같을 때 언표내적 효력은 동일하다. 예를 들면, ‘창문 좀 닫아 주세요?’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질문의 기능이 아닌 요청의 내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문장 형식을 통한 내포적 의미의 전달은 번역시 문장의 변조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 예문들은 번역시 원문의 문장 유형이 목표언어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뀌어서 더 자연스럽게 표현된 경우이다.

- (5) [ST] “Anyone can obey an instinct,”
 [TT] “본능적으로 사는거야 누가 못해?” (『이습1』 78:83)
- (6) [ST] “You have nobody to blame but yourself,” replied the eunuch unfeelingly.
 [TT] “다 네 잘못인데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내시의 대답에는 아무런 감정도 묻어 있지 않았다. (『이습3』 88:92)

예문(5)와 (6)에 쓰인 문장은 모두 평서문인데 목표언어에서 의문문으로 변조되었다. 두 예문에서 변조된 문형은 의문문 중에서 수사의문문으로 청자의 응답이 필수적이 아닌 화자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문장 유형이다. (5)의 경우 ‘누구나 본능적으로 살 수 있다’는 평서문을 부정형 ‘못하다’와 함께 ‘본능적으로 사는거야 누가 못해?’라고 의문문으로 번역되어 본능적으로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했으며, (6)의 원문은 부정문이지만, 긍정 의문문인 ‘누구를 원망하겠는가’로 변조하여 부정문인 ‘아무도 원망할 수 없다’로 번역한 경우보다 좀 더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다.

다음은 한국어의 문장 유형별 직접 표현과 간접 표현이다.

- (7) a. 너는 가지 마라.
 a'. 나는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
 b. 그런 일에 울지 말아라.
 b'. 그런 일에 뭘 우니?
 c. 저는 학교에 갔었어요.
 c'. 제가 학교를 왜 안 가요?
 d.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d'. 오늘은 그만 가 보십시오. (노대규 2002:674-79)

위 (7a-d)는 각각 평서문과 명령문으로 문장 유형의 기본 기능인 진술과 요청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지만, (7a-d)는 이 직접 표현들에 대응되는 간접 표현들이다. (7a)와 (7c)는 간접 표현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왜 안 가요?’로 부정 표현을 이용하였으며, (7b)와 (7c)는 의문문으로 간접 표현을 하고 있다. (7d)의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를 ‘그만 가라’고 명령문으로 직접 표현하면 문장 그대로 ‘가보라’는 의미가 되지만, 대화 상대자가 질문을 더 하려는 상황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화자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원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의문문이나 부정형을 이용하고 있다. 영어에도 빈번히 사용되는 간접화행들이 있는데, 설(Scarle 1975)은 요청이나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들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 (8) a. You could be a little more quiet.
- b. Would you kindly get off my foot?
- c. I can do it for you.
- d. If you need my help, call me at the office. Cynthia.

(8a)와 (8b)는 화자가 청자가 뭔가를 해 주길 바라는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 (8a)는 조용히 할 수 있는 청자의 능력을 표현하며, (8b)는 청자가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의미이다. (8c)와 (8d)는 화자가 청자를 돕겠다고 제안하는 문장으로, (8c)는 화자의 능력을, (8d)의 경우는 화자가 도와 줄 조건을 제시하면서 간접 도움을 제안한다. 영어에서는 의문문, 조동사, 조건절을 이용하여 요청이나 제안을 표현한다.

이처럼 영어와 한국어 각각 문장 유형이나 특정 의미를 지닌 어휘들을 이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언어마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므로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변조가 필요하다.

2.2 부정의 완곡 표현

변조는 일반적으로 두 추론 방식 사이의 대비를 나타내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두 사고 방식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반대의 부정, 즉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하거나 긍정을 부정으로 전환하여 관점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언어에 대한 단순한 언어적 지식 외에도 언어가 쓰이는 맥락과 상황에 적절한 언어외의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상대가 있는 대화는 혼자서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고려해야 하는 정서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도 완곡하게 얘기해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강하게 얘기할 상황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부정 표현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어떤 문장 유형과 어떤 어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곡한 표현이나 강조 표현이 되는 메시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완곡 표현은 수사법에서 ‘완곡어법(euphemism)’이라고 하여 주로 어휘 차원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엘런(Allan 2001:148)은 완곡어법과 내포적 의미(connotation)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완곡어법은 “단어나 그 이상의 표현들이 가지는 내포적 의미는 외연적 의미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나 그 표현들이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문맥에 대한 경험, 믿음, 편견에서 발생하는 의미적 효과”라고 말하면서 완곡어법은 선호하지 않는 표현에 대한 대안으로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려 하는 의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완곡어법은 주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금지된 불쾌하고 공격적인 표현들을 피하고 긍정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쓰이는 용법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죽음에 대해 표현할 때 ‘die’대신에 ‘pass’라는 단어로 대체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리말에서도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죽다’ 대신에 ‘돌아가다’, ‘눈을 감다’ 등의 완곡한 표현이 사용된다.

우리말의 완곡어법에는 두 가지 기제가 동원된다. 첫째, 순우리말보다 한자어나 외래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숨김의 기능을 대행한다. 둘째,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의 범주를 넓은 범주로 바꾸어 숨김의 기능을 대행한다. 그래서 ‘죽다’를 ‘돌아가다’나 ‘눈을 감다’라는 추상적인 어휘로 대체한다. 이와 같은 완곡 표현은 어휘 층위뿐 아니라 문장 층위에서도 발생한다(임지룡 1997).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은 같은 내용이라도 어감에 따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문어체보다도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체면을 생각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구어체에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문장 층위에서 발생하는 완곡 표현은 어떤 내용에 대해 완곡 표현을 많이 쓰는가 하는 문제와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바꾸는가에 중점을 준다. 문장 층위에서 완곡 표현의 경우는 청자를 배려하는 청자 중심의 완곡 표현, 화자를 왜소하게 함으로써 청자의 화행 부담을 줄이는 화자 중심의 완곡 표현, 화자와 청자 외의 제삼자를 배려하는 완곡 표현으로 나누어서 문장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9) a. 바쁘지 않으면, 좀 도와 줄래?(도와줘!)
- b. 좀 줍지 않니?(문 닫아.)
- c. 우리 자연이가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누가 때렸어?)
- d. 빠른 시일 내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 어떻게 반성문으로 안 될까요? (반성문 쓰면 되잖아요.)
- f.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 보자. (나 그거 못해.)

(김미형 2002:46-52)

(9a)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장으로 ‘도와 줘’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바쁘지 않으면’이라는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는 구문을 덧붙인 완곡한 표현이다. (9b)에서는 의문문과 부정 표현을 이용하여 명령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9c)는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기가 곤란해서 추측하는 어투를 이용한 배려 표현이다. (9a-c)의 예문은 청자를 고려한 완곡 표현으로, 도움을 청하거나 명령할 때, 상대방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실수를 지적할 때 쓰인다. (9d-f)는 화자 중심의 완곡 표현으로 (9d)는 ‘주다’를 붙여서 상대방이 하는 일이 화자에게 혜택을 주는 어감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9e)에서는 ‘반성문을 쓰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안 될까요?’라고 부드럽게 표현했으며, (9f)도 화자가 거절을 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한 경우이다.

이처럼 문장 층위에서 알아본 한국어의 완곡 표현은 의문문과 함께 부정 표현을 함께 수사적 기제로 이용하고 있다. 위 문장들에 쓰인 부정 표현은 부정의 원래 기능인 거절이나 부인이 아닌 요청과 배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한 번역에서 부정형을 이용한 완곡 표현으로의 변조가 일어나는 경우를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0)[ST] An old pro? Could this have been another of Promise's pups, one I had never seen? Had she witnessed, from her hiding place in the shadows near a chicken coop, my first meeting with Promise? Had she watched the next summer as her mother and younger brother caught mice in our fields?

[TT] 쥐잡는 솜씨가 프로급이었다구? 혹시 “약속”의 또 다른 새끼, 내가 보지 못한 새끼가 아닐까? 그 놈은 내가 제 어미를 만나고 있는 동안 닭장 그늘 밑에 숨어 나를 훑쳐보았던 건 아닐까? 혹은 이듬해 여름 우리 풀밭에서 자기 어미와 수놈 동생이 쥐를 잡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던 건 아닐까? (RD 51집 16)

(11)[ST] Nick: You may not remember me, I am Nick Marshall. I came here about ten years ago with my ex-wife Gigi.

[TT] 닉: 절 기억하지 못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 닉 마샬입니다. 이혼한 아내 지지와 함께 10년 전쯤에 여기 왔었죠. (TP 118호 13)

(12)[ST] Nick : Doc, could you please give me a break here?

Dr. Perkins: Mr. Marshall, you might find this a little unorthodox, but... you mind awfully if I smoked?

[TT] 닉 : 박사님, 제발 좀 봐주세요, 네?

퍼킨스 박사: 마샬씨, 상담 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담배 좀 피워도 될까요? (TP 118호 15)

예문 (10)에서는 원문의 긍정형을 ‘-아니다’라는 부정형을 이용하여 변조하여 화자의 주장과 의심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원문의 문장 그대로 ‘내가 보지 못한 새끼일까?’, ‘나를 훑쳐 보았던 걸까?’, ‘지켜보았던 걸까?’로 하지 않고 ‘아닐까’를 써서 자신의 불확실한 판단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다. (11)의 번역에서 화자는 상대방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상대방을 배려하여 ‘못 할지도 모르다’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공손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12)에서는 원문에서 ‘unorthodox’라는 단어를 이용해 환자에게 정중하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를 번역문에서 ‘안 되겠지만’이라는 표현으로 전환하여 상대방에게 더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어는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거나 허락을 구할 때 원래 바라는 내용 앞에 ‘안 되겠지만’, ‘바쁘지 않으면’, ‘시간 없으시면’과 같은 부정 표현들을 덧붙이는 간접 화법을 쓴다.

우리말에서는 문장 표면에 부정 표현이 쓰였더라도 문장 내부의 여러 가지 요인들인 실제 대화 상황, 문장의 종류, 어떤 어휘를 첨가하느냐에 따라 부정 아닌 부정이 된다. 표면상 부정 표현이지만 긍정을 의미하는 문장으로 ‘단 돈 100원 밖에 없다’, ‘여간 시원하지 않군요’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단 돈 100원 뿐이다’,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뜻이다. 이 외에 ‘혹시 그것은 제 만년필이 아닙니까?’, ‘이게 책이 아니니?’와 같은 의문문의 경우도 각각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인 겸손과 확인의 표현이다(백봉자 1975). 한국어의 서술문이나 의문문에서 겸손이나 확인을 나타내는 문장에는 ‘어디, 잘, 밖에, 여간, 혹시’ 등의 부사들을 덧붙인다. 이 중에서 ‘-밖에, 여간’은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정형을 덧붙여서 강한 긍정형을 만들어 화자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영어에서 화자는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think, believe, expect, suppose, want’ 등의 감정 동사와 함께 부정어 ‘not’을 이용하여 주절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심적 상태를 나타내며 말하고 싶은 문장을 직접 부정 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로 많이 사용한다.

(13)[ST] I don't think he has a choice.

[TT] 테비드도 달리 방법이 없을거야. (TP 119호 5)

(14)[ST] I don't think I know that hospital.

[TT] 그런 병원은 모르겠는데요. (TP 119호 13)

(13)과 (14) 두 예문 모두 감정 동사 ‘think’를 사용하였는데, 명시적으로 ‘think’를 부정하고 있지만, ‘생각하지 않다’가 아닌 ‘없다’와 ‘모르다’로 종속절의 내용을 부정하는 전체 부정문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화자의 불확실한 감정을 감정 동사와 함께 나타내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영어에서 주절에 감정동사가 쓰이면 단순히 이 감정 동사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절을 부정하는 문장 부정의 의미가 된다.

부정 표현은 문장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과 결합하여 어떤 구조를 이루느냐에 따라 전달하려는 바를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천언어에 쓰인 부정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여 목표언어에서 효과적인 메시지의 변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2.3 부정의 강조 표현

부정 표현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곡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강조하기도 한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강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언어적 요소들이 있다. 구어에서는 어조나 강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강조할 수 있지만, 문어에서는 화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번역가는 원문에 포함된 강조 표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번역에 반영해야 한다.

영한 번역시 동일한 내용을 정반대로 표현하면 원문에 담긴 강조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은 원문과 반대로 번역하여 강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15)[ST] Are you all right?

[TT] 어디 안 좋으세요?

(16)[ST] He has yet to make 35 dollars a week.

[TT] 주급이 아직 35달러도 안 된다. (김정우 2002:41)

위 예문은 원문에 쓰인 긍정형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아니’, ‘않다’와 같은 부정 표현을 이용하여 원문에서 강조하려는 의미를 잘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 말에서의 겸양의 효과도 자연스럽게 얻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화자가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종종 부정형을 이용하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7)a. 너무나도 감사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b.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굉장히 올랐어요.)

c.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바쁘면, 짜증도 나고 그러지 않아요?

d. 그는 나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예요.

e. 오늘 좀 만날 수 없어요?

f. 왜 더 안 드세요? (더 드세요.) (백봉자 1975:45-48)

위 문장들은 모두 부정 표현을 이용하여 (17a)는 강한 의사 표현을, (17c)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바램을, (17d)는 ‘한 명 뿐이다’라는 의미상의 제한을 표현한다. (17e)의 ‘오늘 좀 만날 수 없어요?’는 오늘 만날 수 없다는 것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상대방이 만날 수 없다고 하면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려는 보호의 심리작용에서 나온 발화이다. (17f)는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드시라’는 상대방과의 친밀함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러한 부정 표현을 이용하여 더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형을 이용한 강조 표현이 번역에서 어떻게 변조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ST] “I can't remember as changeable a spring as this.”

[TT] “나 참, 이렇게 변덕스러운 봄날씨는 처음이야.”

(『이습1』 170:175)

(19)[ST] Well, I can eat... because I know we didn't kidnap no woman.

[TT] 못 먹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자를 납치한 것도 아니고. (TP 119호 12)

(18)의 원문에서 ‘can't remember’라는 부정형이 쓰였는데, 번역에서 ‘처음이다’라는 긍정형으로 변조하여 의미를 강조하였고, 이와 반대로 (19)의 원문에는 긍정형이 쓰였지만 번역문에서는 ‘못 먹을 이유가 없다’는 이중 부정형을 써서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각 표현들을 원문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잘 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긍정과 부정으로 변조하면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도 있다.

다음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를 부정 표현으로 변조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예문이다.

(20)[ST] Unlike the massive layoffs of the eighties, which were all but ignored by those went to good colleges and made good money.... (SW 54)

[TT] 1980년도에는 실직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좋던 대졸자

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백인들』 94)

(21)[ST] South Korea has a unique opportunity to pump up North Korea's economy.

[TT] 한국은 북한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둘도 없는 기회를 가진 셈이다. (TP 120호 15)

예(20)에서는 원문의 부정적 의미를 가진 어휘 ‘ignore’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변조하여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21)의 예에서는 ‘unique’가 ‘유일한’이 아닌 ‘둘도 없는’이라는 표현으로 변조되어 ‘하나뿐’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강현화(2004:59)는 어휘관계의 관습적 유형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인 강조 표현의 부정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2) 감탄을 금치 못하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다, 한치 앞도 모르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다,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다, 학교 근처에도 안 가보다, 간도 쓸개도 없다, 죽도 밥도 안 되다, 개뿔도 없다, 꼴도 보기 싫다, 눈도 깜짝이지 않다, -라면 사죽을 못 쓰다, 말도 못하다, 흠잡을 데 없다, 뼈도 못 추리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물샷 틈 없다, 눈코 뜰 새 없다, 몸 둘 바를 모르다, 발 디딜/들여놓을 틈이 없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다

위의 표현들은 모두 부정형과 함께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감탄을 금하다’, ‘눈썹을 까딱하다’처럼 긍정형으로 쓰이지 않는다. 우리말에서 부정형을 이용한 강조 표현은 주로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므로 담화 번역시 원문에 부정형이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강조를 위해 쓰일 수 있다.

영어는 구어나 문어에서나 관용적인 표현을 많이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관용어가 주로 구어에서만 쓰인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었어요’에서 ‘미역국을 먹었다’라는 표현은 구어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일 뿐 문어에서는 주로 ‘떨어졌다, 낙방했다’라고 표현한다.

영어에서 서법조동사(modal auxiliary)는 문장에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한다. ‘may, can, need, must, will’ 등의 조동사는 ‘허가, 능력, 의무, 의지’ 등 화자나 청자의 감정적 표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번역의 변조가 필요할

때가 있다.

조동사를 번역할 때 부정 표현을 이용한 강조 표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메시지의 변조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23)[ST] The biggest utilities had to sell off plants to outsiders, like Duke Energy of Charlotte, North Carolina, and Reliant Energy of Texas, and become middlemen.

[TT] 그에 따라 가장 규모가 큰 공익 사업체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샬로트에 있는 ‘듀크 에너지’와 텍사스의 ‘릴라이언트 에너지’와 같은 외부 업체들에게 발전소를 매각하고 중개업체가 되는 수밖에 없었다. (TP 117호 69:70)

(24)[ST] Their purchases had to be made on the so-called spot-or-cash-market, where prices were low at the time.

[TT] 결국 이들 업체는 이른바 현물-또는 현금-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당시 전력 가격은 현물시장이 저렴했다. (TP 117호 69:70)

(25)[ST] While Bush could not give Bolton another recess appointment,

...

[TT] 부시대통령은 또 다시 휴회 기간 중에 볼튼을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CNN 2006.12.5)

(23)과 (24)의 원문에는 ‘have to’가 쓰였는데, ‘-해야 한다’고 긍정형을 쓰지 않고, 각각 ‘-수밖에 없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다’인 부정형으로 변조하여 꼭 해야 하는 의무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밖에’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정형과 함께 쓰이면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며, ‘-하지 않으면 안 되다’는 이중 부정형으로 역시 강한 긍정의 의미를 강조한다. (25)에서는 가능성의 의미를 포함한 ‘could’와 함께 부정소 ‘not’이 함께 쓰였는데, 번역에서 한자 부정접두사를 이용한 ‘불가능하다’라고 변조하여 기사문의 격식성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표면에 부정형을 드러낸 부정 표현과 어휘에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들의 의미적 자질을 검토하여 부정으로 표현해 내는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유형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법조동사가 쓰인 문장은 조

동사의 의미에 부정의 의미가 더해져 감정이 더 개입되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하는데 긍정형을 부정형으로 변조하여 표현하거나 혹은 반대로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그러므로 번역시 원문에서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여 목표언어에서 더 적합한 표현을 선택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중 부정도 부정 표현을 이용한 강조 표현이 될 수 있다. 한 문장 안에 쓰인 두 개의 부정은 상쇄되므로 논리적으로 긍정의 의미가 된다. 수사학에 있어 이중 부정법이란, 말할이나 글쓰기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강한 긍정 방법의 한 가지이지만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구어에서는 이중 부정문보다 긍정문이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노대규 1996).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표현하기 위한 형식으로 쓰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중 부정형을 쓰면 청자의 정신력을 약화시키고 화자의 입장에서는 단도직입적이지 않게 주저하고 있는 면을 보여준다.

다음 예문은 이중 부정의 변조가 발생한 경우이다.

(26)[ST] A similar trade-off would make it necessary to find new ways to earn cash.

[TT] 외화를 벌어들일 새로운 방안을 찾으려면 이와 비슷한 절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TP 120호 13)

(27)[ST] I couldn't help wondering what Duke would think of that.

[TT] 하지만 우리집 개 듀크가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었다.

(RD 51집 10)

예문 (26)의 경우, 원문의 긍정형을 번역에서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중 부정형으로 변조하여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7)에서는 구어체의 관용 표현으로 우리말에서 습관적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부정형과 ‘wonder’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염려되었다’라는 긍정형으로 변조하여 원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에스퍼슨(Jespersen 1958)은 두 개의 부정어가 동일 개념이나 동일 단어에 관계되어 있으면 그 결과는 항상 긍정이지만, ‘not uncommon’, ‘not infrequent’, ‘not without some fear’ 등의 이중 부정이 ‘common’, ‘frequent’, ‘with some fear’와 똑같은 결과가 되도록 상쇄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또 긴 표현이 의미

가 더 약화되기 때문에 이중 부정을 접한 청자는 두 개의 부정어를 통해 정신력이 약화되고, 화자는 직설적인 단어에 대한 주저를 내포한다. 그래서 이중 부정이 긍정을 강조하는 강조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문장이 길고 화자의 주저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이 되기도 한다.

부정 표현은 완곡어법으로 쓰일 수도 있고 강조어법으로 쓰일 수도 있다. 부정적 어감을 가진 어휘들은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문장 층위에서는 문장 유형을 바꾸기도 하지만, 부정형을 수사적 기제로 이용할 때 더 완곡한 표현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말은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의미에서 ‘시간 없으시면, 바쁘지 않으시면’이나 ‘혹시, 여간, -밖에’와 같은 부정형과 함께 쓰이는 부사 표현을 덧붙여서 겸손한 태도를 표현한다. 그래서 영한 번역시 변조가 발생한다. 영어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조동사가 쓰였을 때 목표언어인 한국어에서 부정 표현을 이용한 변조가 일어나거나 다른 어휘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강조한다. 또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의 방법으로 이중 부정형을 쓰기도 하는데, 표면적으로 부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긍정이기 때문에 번역시 긍정 표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중 부정형을 쓰거나 반대로 이중 부정을 긍정으로 변조하기도 한다.

3. 결론

부정 표현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단순히 부인이나 거절이 아닌 특수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화용론적인 차원에서 각 언어마다 다른 관점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부정 표현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영한 번역시 부정 표현이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한 후 목표언어에서 적절한 변조가 필요할 때가 있다. 기사 표제와 같은 특수한 텍스트에 쓰인 부정 표현은 한국어에서 명사형으로 간결하게 변조되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부정문의 경우, 동일한 의미를 지닌 긍정문으로 바뀌거나 문장의 유형을 변조하여 간접적으로 원문의 의도를 전달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부정 표현은 완곡 표현과 강조 표현이 될 수 있다.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정 표현을 덧붙여 화자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관습적으로 쓰이는 부정의 강조 표현들도 있다. 그래서 영한 번역시 원문에 쓰이지 않은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완곡하거나 강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부정 표현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관점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맥락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 영한 번역시 서로 상응하는 통사구조나 어휘가 존재하더라도 번역가는 상황, 구조, 담화 기능을 고려한 변조를 통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화. 2004. 「한국어 학습을 위한 프레지올러지 유형에 대한 연구(1)」, 『이중언어학』, 24: 49-66.
- 김미형. 2002.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학회』, 7: 27-63.
- 김정우. 2002. 「영어의 강조 표현과 그 번역 기법」, 『번역학연구』, 3(2): 27-46.
- 노대규. 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서울: 국학자료원.
- _____. 2002. 『한국어의 화용의미론』. 서울: 국학자료원.
- 백봉자. 1975. 「한국어의 부정과 그 범주」, 『연세어문학』, 6: 31-50.
- 이종철. 2004. 『국어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임지룡. 1997. 『인지 의미론』. 서울: 탐출판사.
- 전성기 옮김. 2003. 『불어와 영어의 비교문체론: 번역방법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J.P. Vinay · J. Darbelnet. 1958. *Stylistique compare du francais et de l'anglais.*).
- Allan, Keith. 2001. *Natural Language Semantics*. Oxford: Blackwell.
- Austin, J. D.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Oxford UP.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Jespersen, Otto. 1958.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Searle, J. R. 1975. "Indirect Speech Acts," in Peter Cole and Jerry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59-82. Academic P.

Swales, M. 1990. *Genr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P.

분석텍스트

	약자	서지정보
1	SW	Moore, Michael. 2001. <i>Stupid White Man</i> . New York (State): ReganBooks.
	『백인들』	김현후역. 2003. 『멍청한 백인들』. 서울: 나무와 숲.
2	이습1	김정우. 2000. 『이습우화와 함께 떠나는 번역 여행』 1권. 서울: 창해.
3	이습3	김정우. 2000. 『이습우화와 함께 떠나는 번역 여행』 3권. 서울: 창해.
4	TP 117호	『타임연구』 117호. 서울: 시대연구사.
5	TP 118호	『타임연구』 118호. 서울: 시대연구사.
6	TP 119호	『타임연구』 119호. 서울: 시대연구사.
7	TP 120호	『타임연구』 120호. 서울: 시대연구사.
8	TE	『타임 에세이 컬렉션 2001』. 서울: 시대연구사.
9	RD 51집	『영한대역 리더스다이제스트』 제51집. 서울: (주)다산잡지 BU.
10	CNN	CNN 한글뉴스 http://cnn.joins.com

[Abstract]

Modulation of Negative Expression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Kim, Se Jung
(Sej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modulation according to pragmatic differences, in translating negative expressions. Negation has semantic features and expressions that contrast with affirmation, especially the functions in discourse. Expressive functions of negation in Korean differ from those of English. When emotional differences in the source language (henceforth, SL) and target language (henceforth, TL) occur in spite of a grammatically correct translation, modulations are needed. In this case, modulation occurs in terms of negative expressions, negative sentences or messages.

Negative expressions in both English and Korean are not only a matter of refusal or denial, but also emphatic or euphemistic uses. For example, translators sometimes change affirmative sentences into negative ones to emphasize or insinuate the message of SL. A double negative may be used to emphasize a speaker's positive attitude or express a speaker's hesitation.

Negative Expressions in English and Korean need obligatory modulations between the two languages. In other words, translators should literally translate message from ST to TL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unique expressions of both. Besides, optional modulation is also necessary based on pragmatic differences of English and Korean. Translator should not translate literally but rather, deliver somewhat altered message in TL based on cultural context, structure and function of discourse.

▶ Key Words: negative expression, translation, modulation, emphatic, euphemistic

김세정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sejudy@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이론, 담화

논문투고일: 2008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7일